

미 국 에 서 환 자 중 심 의 진 료 와 연 구 를 생 각 하 다



보스턴의 다운타운 맞은편의 찰스강변에서 포즈를 취한 김선영 교수.

2020년 5월에 해외학회에 가서 연수 기관의 책임연구자를 만나고 현지에서 살 집을 구해놓은 후 7월에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지구를 덮치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 해외연수를 접어야 하나 싶었지만 너무도 좋은 기회였기에 결국은 예정대로 강행했다.

미국 현지의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달하면서 연수가 2개월 더 미뤄진 탓에 작년 9월 보스턴에 도착했다. 적막이 감도는 공항에서 첩보작전 같은 검역과정을 뚫고 현지에 도착했을 때의 막막함을 지금 되돌아보면 꿈만 같다.

그래도 현지 사람들은 당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상당수의 상점은 실내 인원 수를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켰기

에 출국 전 우리나라에서 느꼈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다소 누그러졌다. 다만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코로나19 유행이 사상최악으로 치달자 입국시 공포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말이다.

종양학의 역사가 태어난 곳

연수기관인 하버드 의대 부속 다나-파버 암연구소는 내가 전공하는 항암화학요법이 태동한 역사를 품고 있다. 1940년대에 소아 백혈병 환자들에게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종양학의 시대를 연 시드니 파버 박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연구소 1층에는 1950년대부터 연구소를 후원해온 프로야구팀인 보스턴 레드삭스의 포토갤러리가 있다.

연구소 인근의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에서 시구하는 소아암 환자들의 사진을 보며 문득 서울아산병원 근처에 있는 잠실구장이 떠올랐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지역 스포츠팀과 함께 후원의 역사를 쌓아가며 연구 재원을 마련하는 모습이 부러웠다.

암 치료에 대한 사회적 접근

나는 인구과학분과(division of population science)에서 연수를 했는데, 통상적인 생의학적 연구와는 달리 암 발생, 치료,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는 분야다. 일반



연수기관인 하버드 의대 부속 다나-파버 암연구소. 항암화학요법이 태동한 역사적인 기관이다.

적으로는 보건학, 통계학 전문가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이곳은 실제 환자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비율도 높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곳의 연구내용들은 내가 접해왔던 것들과 아주 달랐다. 인종 및 지역에 따른 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임상시험 참여나 삶의 질 및 암 치료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문제의 발견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진료 현장의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린이 가정의 빈곤이 소아암 치료 성적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 후,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소아암 환자들에게 식료품 배송과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편을 제공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중재를 일회성 자선사업이 아니라 실제 지속 가능여부와 효과성을 건강과 의료이용 지표로 측정하며 과학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모습이 내게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미국의 진료 현장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진료 현장을 참관할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진료시간은 훨씬 길었다. 의사-환자 관계는 매우 친밀해보였지만, 충분한 신체검진은 어려워 보였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최대한 신체접촉을 제한하는 경향도 있었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 환자들도 진료 시 휴대폰을 켜놓고 전화 너머에 있는 다른 이를 진료에 참여시키거나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잦았다는 것이었다. 딸과의 전화 통화를 요구한 환자가 진료실을 나간 뒤 “신경쓰이지 않느냐”는 내 질문에 의사는 “거의 일반화된 상황이라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나는 환자가 진료 중 녹음이나 녹화하는 행위를 내심 불쾌하게 여기고 의사에 대한 불신의 표현으로 여겼던 터라 의외의 문화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지구 어느 곳에서나 환자라면 진료를 받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새삼 알게 된 것 같다.

환자 중심의 진료와 연구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으며 생기는 여러 문제를 의료진에게 전하고 조치 받는 일이 미국에서는 훨씬 수월해보였다. 일단 의사 외에 잘 훈련된 의사 외 직군(physical assistant, nurse practitioner)이 환자 상담의 상당부분을 관리한다. 환자용 포털사이트를 통해 담당 의사에게 직접 문의도 가능하다. 환자 중심의 진료를 구현하려는 연구개발



보스턴 레드삭스 홈 경기를 관람하며 눈에 띈 류현진 선수의 전광판.

역시 활발하다. 암성 통증의 자가 조절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나 자연어처리를 통해 환자의 신체증상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만들어 인공지능개발에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의사에게 컨설팅도 원활하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개시된 영상의학과와 비대면 줌 컨설팅은 인상적이었다. 컨설팅을 하는 영상의학과 의사는 하루 종일 줌 링크를 열어둬 임상 의사는 언제든지 원격으로 판독실을 방문해 환자의 CT나 MRI 필름을 함께 보며 상의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처럼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러운 장면이었다.

사회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는 대선과 국회의원선거 사건, 각종 인종차별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매주 연구소와 아이들의 학교에서 날아오는 공지 메일은 당시 뉴스에 가득 나오고 있던 정치적 폭력 사태와 인종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양한 인종, 성적취향,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보스턴 지역은 인종차별이나 폭력 문제가 심하지 않았지만, 이런 격변기에 소수 인종이자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니 다시 생각하게 됐다. 우리나라 사회, 병원, 학교는 소수자를 배려하는지 말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국제적인 수준의 치료성적과 학문적 성과를 자랑하는 만큼,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적 기여의 측면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으면 한다. 글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